

일한어의 행위요구문에 관한 일고찰*

— 직접적 형태를 중심으로 —

김 아 란**

(e-mail: rmfoeh5@hotmail.com)

목 차

1. 머리말
 2. 선행 연구
 3. 본고의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4. 분석 결과 및 고찰
 - 4.1 일본어 행위요구문과 한국어 행위요구문
 - 4.2 일본어 행위요구문의 한국어訳과 한국어 행위요구문의 일본어訳
 5. 맺음말
-

1. 머리말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법적 유사성이 많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운용면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점을 보인다. 그로 인하여 문법적 오류보다는 화용론적 오류가 부각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화용론적 오류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하는 장면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때 사용되는 발화문을 ‘행위요구문’이라고 부르는데, 화자는 청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행위요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는 “잠깐만 기다려.”와 같이 명령문을 통해 행위요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 본 논문은 제38회 한국일본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2010년10월23일)와 Sev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actical Linguistics of Japanese(2011년3월5일)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東北大学大学院 国際文化研究科 博士後期課程 韓日対照言語学

많은 데에 비해,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경우에는 “잠깐만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와 같이 의문문을 통해 청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면서 행위요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물론 화자가 청자에게 행위요구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화자가 청자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간접적인 표현이 선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행위요구문에 사용되는 문법 형태나 표현은 화자가 청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청자를 어느 정도 배려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청자에 대한 화자의 배려는 양자의 대인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사회언어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행위요구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배려가 어떻게 언어화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행위요구를 보다 정중하고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주된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행위요구가 언제나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화자와 청자가 수직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평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경우 역시 적지 않고, 행위요구문의 궁극적 목적은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자신의 요구 사항을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타낼 때 더욱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일한어의 직접적 행위요구문에 사용된 형태를 통해 화자가 청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본어 행위요구문의 한국어訳과 한국어 행위요구문의 일본어訳을 대조함으로써 각 형태 간의 대응 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

2. 선행 연구

행위요구문은 주로 명령문과 의뢰문에 의해 실현된다. 蒲谷 他(1998)에 따르면 명령과 의뢰는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지만, 명령은 상대방의 행위로 달성되는 이익이 청자와 화자 중 어느 쪽에 귀속되느냐에 상관없이 행할 수 있는 언어 행위인 데에 반해, 의뢰는 상대방의 행위로 달성되는 이익이 오로지 화자에게만 귀속되는 언어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지시된 내용을 수행할 것인가 수행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이 명령은 화자에게 있는 데에 반해, 의뢰는 청자에게 있다는 점도 큰 차이점이다. 蒲谷 他(1998)는 シテクダサイ, シナサイ, シテモラエマスカ, シテクレマセンカ와 같은 존대어 형식을 중심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에 주안점을 둔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는 달리 행위요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느냐 간접적

으로 나타내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존대어 형식뿐만 아니라 비존대어 형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발견된다. 柏崎(2007)는 행위요구를 실현하는 형식을 직접적 형식과 간접적 형식으로 나누고, 간접적 형식을 다시 관습적인 간접적 형식과 비관습적인 간접적 형식으로 나누어 설명한 연구인데, 존대어 형식과 비존대어 형식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柏崎(2007)의 각 형식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柏崎(2007)에 제시된 행위요구문의 형식(柏崎2007:104)

직접적 형식	ドアを開めて／てくれ／てください。
관습적인 간접적 형식	ドアを開めてくれる?／くれますか? ／くださいますか?／くださいますでしょうか?
	ドアを開めてくれない?／くれませんか? ／くださいませんか?／くださいませんか?
	ドアを開めてもらえる?／もらえますか? ／いただけますか?／いただけますでしょうか?
	ドアを開めてもらえない?／もらえませんか? ／いただけませんか?／いただけませんか?
비관습적인 간접적 형식	部屋を暖めておきたいんですけど。 ちょっと寒くありませんか?

직접적 형식에는 ‘~て’나 ‘~てくれ’, ‘~てください’와 같이 행위요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형태가 사용되었는데 반해, 간접적 형식에는 청자에게 행위요구의 실현 의지를 묻는 의문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그러나 柏崎(2007)가 비존대어 형식에도 초점을 맞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蒲谷 他(1998)와 마찬가지로 정중도를 강조하고 있어 그 고찰 대상이 존대어 형식에 집중되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행위요구문에 관한 연구가 처음부터 존대어 형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益岡·田窪(1992)는 행위요구문을 실현하는 형식을 크게 존대어와 비존대어로 이분화하고, 명령과 금지를 실현하는 형식은 명시적 형태와 비명시적 형태로, 의뢰를 실현하는 형식은 직접의뢰형식과 간접의뢰형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우선, 명시적인 명령 형식에는 동사의 명령형(이하 口形)과 「동사의 연용형+なさい」(이하 ナサイ形), 동사의 ㄱ形이 해당되고, 비명시적인 명령 형식에는 동사의 기본형, 「동사의 기본형+[こと/ように]」, ㄴ形이 해당된다.

명시적인 금지 형식에는 「동사의 기본형+な」, 비명시적인 금지 형식에는 「동사의 テ形+は+[いけない/だめだ]」가 해당된다. 의뢰는 직접의뢰형식과 간접의뢰형식으로 나뉘는데, 직접의뢰형식에는 「~てくれ、~て下さい、~てちょうだい」와 같은 「동사의 テ形+「くれる」의 명령형」과 「~てくれるか、~てくれないか、~てもらえるか、~てもらえないか」와 같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형식이 해당된다. 간접의뢰형식에는 「~てほしい、~てもらいたい、~てほしいのだけれども」와 같이 상대방의 동작을 자신이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형식과 「~てくれると助かる、~てくれるといいのだが、~てくれるとありがたいのだけれども」와 같이 그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됨을 상대방에게 알려 상대방이 그 동작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형식 등이 해당된다. 이와 같이 일본어의 행위요구문은 다양한 형식으로 실현되는데 정중도가 강조되면서 존대어 형식의 간접적 행위요구문을 중심으로 한 논고가 주를 이루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어의 행위요구문은 청자 대우법의 등급별로 존재하는 명령형에 의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박영준1991, 고영근·남기심1993). 한국어의 청자 대우법은 청자에 대한 대우도에 따라 합니다체, 해요체, 하오체, 하네체, 해체, 한다체로 나뉘는데 표2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각 등급별로 고유의 명령형을 가진다.

표2. 한국어의 명령형(고영근·남기심1993, 국립국어원2005)

	청자 대우법		명령형(대표형)
존대	합니다체	아주높임	-하십시오
	해요체	두루높임	-어요
	하오체	예사높임	-오
비존대	하네체	예사낮춤	-게
	해체 ¹⁾	두루낮춤	-어
	한다체	아주낮춤	-어라

존대어는 존경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시오’와 공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합니다체의 명령형 ‘-하십시오’와 하오체의 명령형 ‘-오’는 ‘-시오’와 공기한 ‘-십시오’와 ‘-시오’로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다(고영근·남기심

1) 한길(2002)은 해체를 청자를 낮추는 등급이 아닌 청자를 높이지 않는 등급으로 여기고 있다.

1993).

또한 명령문의 부정법으로 ‘말다 부정법’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본어의 금지 표현에 해당한다. 국립국어원(2005)은 평서문의 부정 요소인 ‘안’과 ‘-지 않다’가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말다’로 바뀌기 때문에 ‘말다’를 ‘안’과 ‘-지 않다’의 일종의 변이부정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각 등급에 따른 말다 부정형을 제시하면 표3과 같다.

표3. 한국어의 말다 부정형

	청자 대우법	말다 부정형
존대	합니다체	-지 마십시오
	해요체	-지 마(세)요
	하오체	-지 마시오
비존대	하네체	-지 말게
	해체	-지 마
	한다체	-지 마라

표2와 표3에 제시된 형태들은 행위요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행위요구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형태들도 있다. (1)은 고성환(1996)에 제시된 예문이다.

- (1)a. 불펜 좀 줄래?
- b. 내일은 모두 아침 6시까지 등교한다.
- c. 줄 좀 십시다.

고성환(1996:105)

위의 예문들은 통사적으로는 각각 의문문, 평서문, 청유문에 해당하지만 의미·화용론적으로는 모두 행위요구문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한국어의 행위요구문이 항상 명령형, 의문형, 평서형, 청유형과 같이 문장 종류를 결정하는 형태들에 의해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2)와 같이 ‘-ㄹ 것’, ‘-도록’, ‘-(으)ㄴ’에 의해 행위요구문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²⁾.

- (2)a. 손대지 말 것.
- b. 10시까지 모두 모이도록.

2) 그러나 (2)와 같은 행위요구문은 구어체보다는 문어체에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구어체에서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빈도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 여겨진다.

c. 이곳에는 차를 세우지 못함.

고성환(1996:106)

이와 같이 한국어의 행위요구문 역시 다양한 형식에 의해 실현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김예영(2008)에서도 설명된 바 있다. 김예영(2008)은 담화 화용적 기능을 중심으로 행위요구표현을 지시, 요청, 청유, 권유로 나누고 명령형과 말다 부정형에 의한 행위요구문 이외에 평서형, 의문형, 청유형에 의한 행위요구문도 행위요구표현에 포함시키고 있다.

尹相実(2007)은 한일어의 행위요구표현을 분석·고찰한 대표적인 대조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 드라마의 시나리오집과 일본어 대역본을 데이터로 하여 한국어의 행위요구표현이 일본어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분석하고, 한국어 모어 화자와 일본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와 비교하여 일본어 쪽이 간접 표현의 사용 빈도가 높다고 설명하면서 동일한 행위요구표현이라고 할지라도 그 발상에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尹相実(2007)의 논고는 행위요구문을 실현하는 형태뿐만 아니라 발상의 차이에도 주목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행위요구문→일본어訳」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 직접적 표현과 간접적 표현을 함께 다루고는 있지만 간접적 표현을 중심으로 고찰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3. 본고의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위요구문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존대어 행위요구문과 간접적 행위요구문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직접적 행위요구문과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행위요구문을 실현하는 형태 중 행위요구를 명시적,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형식을 중심으로 존대어 형식과 비존대어 형식 양쪽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일한양언어의 행위요구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밝히도록 하겠다.

일본어는 益岡·田窪(1992)를 참고하여 명령을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口形, テ形(ナイデ形 포함), ナサイ形과 금지를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동사 기본형+ナ」形, 의뢰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형식 중 動詞のテ形+「くれる」の命令形인 テクダサイ(ナイテクダサイ 포함)形, テクレ(ナイデクレ 포함)形, テチョウダイ(ナイデチョウ다이 포함)形을 고찰 대상으로 삼기로 하겠다. 한국어는 청자 대우법 등급별로

존재하는 동사의 명령형과 말다 부정형을 고찰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본고의 고찰 대상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 표4이다³⁾.

표4. 본고의 고찰 대상

	일본어	한국어	
존대	ナサイ形 テクダサイ形 (ナイテクダサイ形 포함)	합니다체	명령형
			말다 부정형
		해요체	명령형
말다 부정형			
		하오체	명령형
			말다 부정형
비존대	ロ形 テ形 (ナイテ形 포함) テクレ形 (ナイデクレ形 포함) テチョウダイ形 (ナイデチョウダイ形 포함) 동사 기본형+ナ	하네체	명령형
			말다 부정형
		해체	명령형
			말다 부정형
		한다체	명령형
			말다 부정형

본고에서는 2005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봉된 일본 영화 3편과 한국 영화 3편의 대사를 데이터로 사용하기로 한다⁴⁾. 언어 연구에 있어서 각 언어의 모어 화자에 의한 실제의 일상대화가 가장 신뢰성 높은 데이터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실제의 일상대화에서는 행위요구문의 출현이 적고 다양한 인간관계, 다양한 발화 상황에 의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영화 대사를 데이터로 사용하기로 한다.

3) 단 아래의 예문과 같이 명령형을 취하면서 명령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 발화문은 고찰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例)a. あいつにこのことが知られてみる、たいへんなことになるぞ。(町田・井上2002:16)

b. 자꾸 그만 식으로 해 봐.(작례)

4) 본고에서는 일본영화 『いま、会いにゆきます(2005)』, 『ハチミツとクローバー(2007)』, 『虹の女神(2007)』와 한국영화 『새드무비(2005)』, 『미녀는 괴로워(2006)』, 『청춘만화(2006)』를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본문에서는 이하와 같이 略語로 그 출처를 밝히기로 한다.

『いま、会いにゆきます』→『いま』, 『ハチミツとクローバー』→『ハチ』, 『虹の女神』→『虹』
『미녀는 괴로워』→『미녀』, 『새드무비』→『새드』, 『청춘만화』→『청춘』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영화 대사를 문자화·문서화한 뒤, 직접적 행위요구형식이 사용된 행위요구문을 전부 추출하였다. 그런 뒤 각 형식별 출현빈도를 확인하고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4절에서는 개별언어 레벨에서 일본어의 행위요구문과 한국어의 행위요구문을 분석·고찰한 뒤 양언어를 대조분석하도록 하겠다. 또한 일본어의 행위요구문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었고 한국어의 행위요구문이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그 대응관계를 밝히도록 하겠다.

4. 분석 결과 및 고찰

4.1 일본어 행위요구문과 한국어 행위요구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일본어의 행위요구문은 총 154예 나타났는데 그 중 존대어 행위요구문이 21예,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이 133예였다. 우선 존대어 행위요구문에 사용된 형식을 살펴보면 ナサイ形이 3예(14.3%), テクダサイ形이 18예(85.7%)였다. 아래의 예문은 ナサイ形이 사용된 예문으로, (3)은 대학생이 동급생 친구에게, (4)는 형사가 용의자(스토커)에게 행위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3) 智也：(あおいに薬を塗ってもらいながら) イテ、イテ。

あおい：ダメ。ちょっと、じっとしてなさい。

『虹』

(4) あのお姉さん、年いくつよ。だいぶ年上だろ。もっと普通に恋しなさいよ。 『ハチ』

분석 결과, ナサイ形은 「同年齡間」과 「年上→年下」에서만 그 사용이 확인되었고 「年下→年上」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年下→年上」에서는 テクダサイ形만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ナサイ形이 口形の 존대어 형식이기는 하지만 청자에 대한 대우도가 다른 존대어 형식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テクダサイ形이 사용된 행위요구문을 살펴보면 18예 중 14예(77.8%)가 「年下→年上」, 3예(16.7%)가 「同年齡間」, 1예(5.5%)가 「年上→年下」에서 사용되었다. 우선 テクダサイ形이 「年下→年上」에서 사용된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5)는 후배가 선배에게, (6)은 미아의 보호자가 경찰에게 행위요구를 나타낸 예문이다.

(5) 竹本：今はぐちゃんを支えられるのは、花本先生でもなくて、もちろん僕でもなくて、森

田さんだけなんですよ。たぶん。

森田：いや、俺に何かできることなんてないでしょ。

竹本：あるはずです。ちゃんと考えてください。僕には考えても考えても分からないけど、森田さんならきっと分かるはずです。 『ハチ』

(6) あおい：すみません。あの、白い杖を持った女の子、見なかったんですか。

16歳なんですけど、紫陽花の絵が付いた浴衣着てて……。

警察：紫陽花……。

あおい：目が見えないんですよ。一人で迷ったみたいで……。

探し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虹』

이어서 「年上→年下」와 「同年齡間」에서 テクダサイ形이 사용된 예문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7)은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의 예문이고, (8)은 화자와 청자의 나이가 동일한 경우의 예문이다.

(7) 滯：だから巧と佑司を誰かに託したくて……。彼は生きてくえでのいろんな力が弱いから。だから誰からに、誰かに託したくて……。お願いできませんか、あの2人を。

永瀬：え？

滯：私そんなに立派な人間じゃないや。二人のことは心配だけど、巧が誰かといるのはやだ。他の誰かを、他の誰かを愛するようになったらやだ。(泣きながら) ごめんなさい。ごめんなさい。あ……、忘れてください。 『いま』

(8) 監督：じゃあ、行きます。本番。用意。スタート。

女性役者：ガスなんて見えねえわ。

男性役者：このまま前に這って進もう。

智也：ねえ、ちょっと考えてもらっていいかな。

あおい：本番中にしゃべらないでください。

智也：何よ、これ。 『虹』

(7)의 滯와 (8)의 あお이는 상대방에게 비존대어를 사용해도 되는 연령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친밀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テクダサイ形을 사용하여 행위요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서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에 사용된 형식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분석 결과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에 사용된 형식은 ㄱ形이 30例(22.5%), テ形이 84例(63.1%), テクレ形이 9例(6.8%), テチョウダイ形이 1例(0.8%), 「동사 기본형+ナ」

形이 9例(6.8%)였다. 실제의 예문을 제시하여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9)는 목공이 대학생에게, (10)은 대학생이 동급생인 친구에게 口形을 사용하여 행위요구를 나타낸 예문이다.

(9) 竹本：これって頭貫ですよ。室町くらいですか。

大工：詳しいな。やってみるか。

竹本：いいんですか。

大工：いいわけねえだろ。邪魔だ。あっち行ってろ。

竹本：すみません。

『ハチ』

(10) あおい：だから軍資金もうないんだよ。

服部：じゃあ、俺2千円出すわ。(延島に) 出せる? お金。

延島：じゃあ、俺3千円出す。

あおい：全然足りないって。

服部：あとは自分で何とかしろよ。自分の映画やろ。

『虹』

口形은 존대어 ナサイ形과 마찬가지로 「年下→年上」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화자가 남자인 경우에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94.1%). 한편, テ形은 「年下→年上」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비존대어 형태임이 확인되었다. (11)은 유치원생이 엄마에게, (12)는 대학생이 동급생인 친구에게, (13)은 디자이너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행위요구를 나타낸 예문이다.

(11) ママ、(お風呂から) あがったよ。拭いて。

『今』

(12) 智也：何やってるの?

あおい：掃除。手伝ってよ。

『虹』

(13) デザイナー：おーい、バイト君。おーい。

真山：はい。

デザイナー：来て。

『ハチ』

한편, テクレ形은 「年上→年下」에서만, 그리고 화자가 남자인 경우에만 그 사용이 확인되었다. (14)는 대학교수가 학생에게 テクレ形을 사용하여 행위요구를 나타낸 예문이다.

(14) お願いだからそんな目で見ないでくれよ。こっちまで切なくなる。

とにかくたまには様子見に来てやってくれ。なっ?

『ハチ』

다음은 テチョウダイ形이 사용된 예문으로, 디자이너가 아르바이트생에게 행위 요구를 나타고 있다.

(15) デザイナー : これだけだっけ? そうだよな。

真山 : はい。

デザイナー : あ、これさ、図面に起しといてちょーだい。

ちゃちゃっと今日中に。はい、よろびくー。

『ハチ』

「동사 기본형+ナ」形은 口形과 마찬가지로 「年上→年下」와 「同年齡間」에서만 그 사용이 확인되었고 「年下→年上」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화자가 남자일 때만 사용되었다. (16)은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17)은 선배가 후배에게 「동사 기본형+ナ」形을 사용하여 행위요구를 나타낸 예문이다.

(16) 現像したら一番最初にミユキに写真見してやるからそんな顔するなよ。

『虹』

(17) お前は一人じゃない。花本さんがいる。俺がいる。山田も真山だって。

竹本なんかはバカみたいにお前のこと心配して……。だから勝手に一人になるな。

『ハチ』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口形과 「동사 기본형+ナ」形은 ナサイ形과 마찬가지로 「年下→年上」에서는 사용되지 않았고, テクレ形은 「年上→年下」에서만 그 사용이 확인되었다. 즉 비존대어 형태 중 「年下→年上」에서 사용된 형태는 テ形뿐이었다. 또한 화자와 청자의 성별을 확인해 본 결과 口形은 화자가 남자인 경우에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テクレ形과 「동사 기본형+ナ」形은 화자가 남자인 경우에만 사용되었다.

한편, 한국어의 행위요구문은 총 207예 출현하였는데 그 중 존대어 행위요구문이 54예,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이 153예였다. 존대어 행위요구문은 전부 해오체에 의해 실현되었고(54예 중 4예가 말다 부정형), 합니다체와 하오체가 사용된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은 해체가 133예(이 중 23예가 말다 부정형), 한다체가 20예(이 중 2예가 말다 부정형)였고 하네체로 실현된 예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립국어원(2005)에 따르면 예사놀임의 하오체와 예사

낮춤의 하네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끔 사용되는 정도라고 하였는데, 본고의 분석 결과 역시 선행연구의 지적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등급을 제외시키면 한국어의 존대어 등급은 합나다체와 해요체, 비존대어 등급은 해체와 한다체로 성립되는데, 분석 결과 한국어의 존대어 행위요구문은 해요체에 의해,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은 해체와 한다체에 의해 실현됨을 알 수 있었다. 화자와 청자의 연령 관계를 확인해 보면, 존대어가 담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연령 관계에 상관없이 해요체가 사용되었는데, 비존대어가 담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연령 관계에 따라 선택되는 형태에 차이가 나타났다. 해체는 비존대어로 대화하는 사이라면 화자와 청자의 연령 관계에 상관없이 그 사용이 자유로웠던 반면, 한다체가 「年下→年上」에서 사용된 예는 (18)에 제시한 1例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18)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아빠가 나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맞은 거보다 더 아프니까 그냥 용서해 주라. 『청춘』

한다체는 아주낮춤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국립국어원(2005)에 따르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청자에게는 한다체의 명령형은 사용되지 않는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이 예문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동작 행위가 아닌 ‘용서’라는 심리적 상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그 요구내용이 일반적인 행위요구와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점, 또 ‘용서하다’의 명령형인 ‘용서해라’가 아닌 수수보조동사 ‘-어 주다’와 결합함으로써 ‘용서해 주라’로 발화되었다는 점에서 「年下→年上」임에도 불구하고 한다체의 명령형이 사용 가능했다고 보여진다⁵⁾.

이하에서는 실제의 예문을 제시하여 한국어의 행위요구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존대어 행위요구문부터 살펴보도록

5) 고영근·구본관(2008)은 ‘주다’의 한다체 명령형이 행위의 수혜자가 화자 자신일 때와 제3자일 때 그 형태가 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즉 행위의 수혜자가 화자 자신일 때는 ‘다오’로 실현되지만 행위의 수혜자가 제3자일 때는 ‘주어라(줘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다소 다른 쓰임이 발견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1) 내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야. 맛있게 {a. 먹어 주라 / b. 먹어 줘라}.

(2) 영희가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이래. 맛있게 {a. 먹어 주라 / b. 먹어 줘라}.

(1)에서는 a가, (2)에서는 b가 보다 자연스럽다고 여겨지는데 ‘-어 주라’는 행위의 수혜자가 화자인 경우에, 본래의 형태인 ‘-어 줘라’는 행위의 수혜자가 제3자인 경우에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진다. 본문에 제시된 예(18)은 행위의 수혜자가 화자 자신으로, 이때 사용된 형태가 ‘-어 줘라’가 아닌 ‘-어 주라’임을 통해서도 본고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록 하자. (19)는 영화사 직원이 시나리오 작가에게 해요체의 명령형을 사용하여 행위요구를 나타낸 예문이고, (20)은 점을 보러간 손님이 점쟁이에게 해요체의 말다 부정형을 사용하여 행위요구를 나타낸 예문이다.

(19) 지문이 좀 산만해요. 대사도 좀 그렇고. 뭐 아직 어리고 처음이라니까 이해는 하고요. 이거 우리 영화사에 넘겨요. 내가 작가 붙여서 고쳐볼 테니까.
『청춘』

(20) 점쟁이 : 이 남자하고는 절대 안돼. 될 수가 없어.
나도 좋은 얘기해 주고 싶어. 근데 어찌겠어?
한나 : 제발 관상이 그래서 그렇다곤 하지 마세요.
『미녀』

다음은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1)은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해체의 명령형을 사용하여 행위요구문을 나타낸 예문이고, (22)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체의 말다 부정형을 사용하여 행위요구를 나타낸 예문이다.

(21) 너 내 얘기 똑바로 들어. 개가 아빠 걱정됐으면 찾아가도 벌써 찾아 갔어. 니가 거기 있다고 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 당분간 시트콤이나 잘 해.
『미녀』

(22) 아버지. 어, 아들. 나 오늘 해냈어. 내가 오늘 죽여 줬지, 뭐.
어디 가지 마. 내가 오늘 꽃등심 쏜다!
『청춘』

다음은 한다체로 행위요구문이 실현된 예문인데, (23)은 한다체의 명령형으로, (24)는 한다체의 말다 부정형으로 행위요구가 실현되었다.

(23) 영훈 : 이거 운동환데 달래가 내가 산 것처럼 해서 너 주래.
달래 : 야!
지환 : 고마워. 좋은 일 있을 때나 명절 때만 아껴서 신을게.
달래 : 야, 그 신발 좀 버려라.
지환 : 기억 안 나? 이것도 니가 사준 거야.
『청춘』

(24) 한나 : 오호, 불타는 연애를 하신다? 누구?
(명함을 꺼내며) 아, 이 남자? 이 남자도 과연 로맨스를 꿈꿀까?
물건 팔아먹으려는 건 아니구?

정민 : 너 내 가방 뒤졌나?

한나 : 남의 옷을 몰래 입었으면 주머니는 비우는 게 예의 아니야?

로맨스도 좋고 다 좋은데 절대 물건은 사지 마라. 『미녀』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본어의 행위요구문에서는 강제성이 보다 낮은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대우도를 높이고 청자에 대한 배려를 명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존대어 담화에서는 ナサイ形보다 テクダサイ形을 사용하여 행위요구를 실현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비존대어 담화에서는 口形보다 テ形을 사용하여 행위요구를 실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어의 비존대어 담화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아주낮춤의 한다체보다 두루낮춤의 해체를 사용하여 행위요구를 나타냄으로써 대우도를 높이고 청자에 대한 배려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일본어와 동일한 방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존대어 담화에서는 이와는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아주높임의 합니다체가 아닌 두루높임의 해요체를 선택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대우도가 낮은 형태가 선택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성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 표5이다⁶⁾.

표5. 일한어 행위요구문에서 실현 형태가 선택되는 방향성

	일본어	한국어
존대어	テクダサイ形 ↑ 上向 ナサイ形	합니다체 ↓ 下向 해요체
비존대어	テ形 ↑ 上向 口形	해체 ↑ 上向 한다체

행위요구와 같이 청자에게 부담을 부하하는 언어행위를 행할 때는 화자가 청자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기 마련인데, 한국어의 존대어 담화에서는 그와 반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그 이유를 해요체가 비격식체라는 점과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어의 청자 대우법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뉘어지는데 합니다체와 하오체, 하네체와 한다체가 격식체로, 해요체와 해체가 비격식체로 분류된다. 국립국어원(2005)에 따

6) 여기서 말하는 방향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대체적인 경향을 가리킨다.

르면 격식체는 예의와 격식을 차려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표시해야 할 존경을 나타내고 상대방의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맞는 대우를 하는 동시에 상대방과 대비되는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비격식체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될 만큼 가깝거나 친한 사이에서 심리적 거리감을 없애고 더 친근하고 정감적인 태도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된다. 즉 한국어의 존대어 담화에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요구할 경우에는 격식체를 사용하여 청자와의 사회적, 심리적 거리를 명시화하기보다는, 비격식체를 사용하여 심리적 거리를 없애고 친근하고 정감적인 태도로 행위요구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요구가 보다 받아들여지기 쉽게 유도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존대어 행위요구문에 합니다체가 아닌 해요체가 선택되어도 그 발화문이 존대어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해요체에 의한 행위요구문이 무례하게 느껴지거나 불쾌감을 초래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판단된다.

표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의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이 해체에 의해 실현되는 경향이 강한 이유는 청자에 대한 대우도가 한다체보다 해체가 더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해체가 비격식체이고 한다체가 격식체라는 점에서 존대어 행위요구문에서와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존대어에서는 비격식체인 해요체가 격식체인 합니다체보다 대우도가 낮지만, 비존대어에서는 비격식체인 해체가 격식체인 한다체보다 대우도가 높기 때문에 청자에 대한 대우도만으로도 그 경향이 충분히 설명되는 듯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존대어 행위요구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격식체, 비격식체라는 개념이 적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자에 대한 경어 등급이 일본어에는 です·ます体와 である·だ体 두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데에 반해, 한국어에는 존대어 등급과 비존대어 등급이 복수 존재하고 그 등급 간에 격식체와 비격식체라는 대립이 존재하여 행위요구문을 실현할 때에도 그 대립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4.1에서는 행위요구문을 실현하는 형태를 통해 일한어에서 화자가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어에는 강제성이 보다 낮은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대우도를 높이고 청자에 대한 배려를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어에서는 격식체 형태보다 비격식체 형태를 선택하여 청자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기보다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 일본어 행위요구문의 한국어訳과 한국어 행위요구문의 일본어訳

4.1을 통해 일한어의 행위요구문에서 화자와 청자의 심리적 거리 조정 전략에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에서는 형태 간의 대응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본어의 행위요구문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었고

한국어의 행위요구문이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어의 행위요구문은 총 154예 나타났는데 그 중 존대어 행위요구문이 21예, 비존대 행위요구문이 133예였다. 우선 존대어의 행위요구문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그 내역을 살펴보면, ナサイ形은 전부 해체로 번역되었고 テクダサイ形은 18예 중 12예가 해요체, 2예가 해체, 4예가 그 밖의 형태로 번역되어 있었다. 4.1에서 ナサイ形이 존대어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존대어와 비교하여 청자에 대한 대우도가 달라 「年下→年上」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는데, 한국어訳에도 그와 같은 사용이 반영되어 ナサイ形에 의한 행위요구문은 (25)와 같이 전부 한국어의 비존대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25) a. じっとしてなさい。(同年齡、女→男)

→ 해체 명령형 : 「가만 좀 있어 봐.」 『虹』

b. もっと普通に恋しなさいよ。(年上→年下、男→男)

→ 해체 명령형 : 「사랑을 하려면 평범하게 해.」 『ハチ』

c. 佐司、自分でふきなさい。(年上→年下、男→男)

→ 해체 명령형 : 「네가 뒹안.」 『いま』

テクダサイ形이 비존대어로 번역된 예도 있었는데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26)과 같이 연령이 동일한 경우의 예문이었다.

(26) 智也 : 女って何なんだろうな。「여자는 대체 뭘까?」

女って何考えてるんだろ。「여자는 무슨 생각을 할까?」

あおい : さあ、私は普通に生きてますけど。

「글쎄, 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걸.」

智也 : 君のことじゃないんだけど。「네 얘기 아냐.」

あおい : 君のことじゃないって言われるとちょっと……。

「내 얘기가 아니라니…….」

私が女じゃないみたいでちょっとカチンとくるけど。

「난 여자도 아니란 말이야?」

まあ、元気出して頑張ってください。

「암튼 힘내서 잘 살아!」

『虹』

智也和 あおいは 같은 대학에 재학 중인 동급생인데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이로, 智也는 あおい에게 비존대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あおいは 智

也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존대어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친밀도가 낮은 사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같은 경우에는 비존대어가 선택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번역에도 영향을 미쳐 일본어가 존대어임에도 불구하고 智也에 대한 あおい의 발화는 전부 비존대어로 번역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일본어는 화자와 청자의 연령보다 양자의 친밀도를 중시하는 데에 반해 한국어는 친밀도보다 연령을 중시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テクダサイ形은 전부 존대어로 번역되었다. 실제의 예문을 (27)에 제시하도록 하겠다.

- (27) a. 役に立つと思ったらそのままここで使ってください。(年下→年上、男→女)
 → 해요체 명령형 : 「쓸만하다고 판단되면 절 채용해 주세요.」⁷⁾ 『ハチ』
- b. ちょっとニュース見てください。(年下→年上、男→男)
 → 해요체 명령형 : 「뉴스 좀 봐 봐요.」 『虹』
- c. 俺を原田デザインで使って下さい。(年下→年上、男→女)
 → 그 밖의 형태 : 「하라다 디자인에서 일하고 싶어요.」 『ハチ』
- d. ちょっと待って下さい。(年下→年上、男→男)
 → 그 밖의 형태 : 「잠시만요.」 『虹』

이어서 일본어의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이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일본어의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은 30예가 口形, 84예가 テ形, 9예가 テクレ形, 9예가 「동사 기본형+ナ」形, 1예가 テチョウダイ形로 총 133예 나타났는데, 그 중 106예(79.7%)가 해체로 번역되어 있었다. 우선 口形の 번역 상황을 살펴보면 30예 중 26예(86.7%)가 해체의 명령형, 4예(13.3%)가 그 밖의 형태로 번역되어 있었다. (28)은 실제의 예문을 제시한 것인데, (28a)가 해체의 명령형으로 번역된 예문이고 (28b)가 그 밖의 형태로 번역된 예문이다.

- (28) a. あっち行ってろ。(年上→年下、男→男)
 → 해체의 명령형 : 「저리 가.」 『ハチ』
- b. 何とかしろ、コラ。(年上→年下、男→男)
 → 그 밖의 형태 : 「대책을 세워야지.」 『虹』

テ形の 번역 상황을 살펴보면, 84예 중 66예(78.6%)가 해체의 명령형, 1예

7) 해요체 명령형으로 번역된 12예 중 6예(50.0%)가 선어말어미 ‘-시-’와 수수보조동사 ‘-어 주다’가 결합한 ‘-어 주세요’의 형태로 번역된 예문이었다.

(1.2%)가 한다체의 명령형, 17예(20.2%)가 그 밖의 형태로 번역되어 있었고 84예 중 13예(15.5%)가 ‘-아 줘’와 결합한 형태였다. 다음의 (29a)는 해체의 명령형으로 번역된 예문이고, (29b)는 해체의 말다 부정형, (29c)는 한다체의 명령형, (29d)는 그 밖의 형태로 번역된 예문이다.

- (29) a. ママの言うこと、よく聞いて。(年上→年下、女→男)
→ 해체의 명령형 : 「엄마 말 잘 들어.」 『いま』
- b. 誰にも言わないでよ。(同年齡、男→女)
→ 해체의 말다 부정형 :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いま』
- c. ねえ、書いて。(同年齡、男→女)
→ 한다체의 명령형 : 「써 주라.」⁸⁾ 『虹』
- d. 勝手に決めないでよ。(同年齡、男→女)
→ 그 밖의 형태 : 「왜 마음대로 정하냐?」 『虹』

テクレ形の 번역 상황을 살펴보면, 9예 중 6예(66.7%)가 해체, 2예(22.2%)가 한다체, 1예(11.1%)가 그 밖의 형태로 번역되어 있었다. 실제의 예문을 제시하면 (30)과 같다.

- (30) a. 礼ならあの青春君に言ってくれ。(年上→年下、男→女)
→ 해체의 명령형 : 「인사는 그 청춘남한테 해.」 『ハチ』
- b. やめてくれよ。(同年齡、男→女)
→ 해체의 말다 부정형 : 「그러지 마.」 『虹』
- c. あの巨大な奈良漬、何とかしてくれよ。(年上→年下、男→男)
→ 그 밖의 형태 : 「저 거대한 장아찌나 어떻게 해 보지?」 『ハチ』

「동사 기본형+ナ」形の 번역 상황을 살펴보면, 9예 중 7예(77.8%)가 해체, 2예(22.2%)가 그 밖의 형태로 번역되어 있었다.

- (31) a. あおい、動くな! (年上→年下、男→女)
→ 해체의 명령형 : 「아오이, 움직이지 마.」 『虹』
- b. まあ、深く考えるなよ。(同年齡、男→女)
→ 해체의 말다 부정형 :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虹』
- c. ふざけんよ。(年上→年下、男→男)

8) 4.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행위의 수혜자가 화자 자신인 경우에는 ‘-어 줘라’가 아닌 ‘-어 주라’로 실현되어 있었다.

→ 그 밖의 형태 : 「놀러 온 거나?」 『虹』

마지막으로 テチヨウダイ形の 한국어 번역을 살펴보면 (32)와 같이 해체의 명령형으로 번역되어 있었다.

(32) これさ、図面に起こしといてちよーだい。(年上→年下、男→男)

→ 해체의 명령형: 「이거 도면으로 옮겨 줘」 『ハチ』

일본어의 口形과 한국어의 한다체가 대응 관계를 보일 것이라 예상하였으나, 분석 결과 口形이 한다체로 번역된 예는 1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口形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다체로의 번역이 적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이 한다체보다 해체에 의해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한국어의 행위요구문이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분석 결과, 존대어 행위요구문은 54례,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은 153례 나타났다. 존대어의 행위요구문은 전부 해요체였고⁹⁾ 비존대어의 행위요구문은 153례 중 133례가 해체(그 중 23례가 해체의 말다 부정형), 20례가 한다체(그 중 2례가 한다체의 말다 부정형)였다. 우선 해요체의 행위요구문이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면, 54례 중 19례(35.2%)가 テ形, 4례(7.4%)가 テクレ形, 14례(25.9%)가 テクダサイ形, 14례(25.9%)가 그 밖의 형태로 번역되었고 3례(5.6%)는 아예 번역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존대어인 해요체의 행위요구문이 일본어로 번역될 때 비존대어로 번역된 예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한국어의 존대어 행위요구문이 일본어로 번역될 때 반드시 존대어 형식으로 번역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의 예문을 (33)에 제시하도록 하겠다.

(33) a. 들여 보내요。(年上→年下、男→女)

→ テ形 : 呼んで。 『미녀』

b.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同年齡間、男→女)

→ テクレ形 : 好きに考えてくれ。 『새드』

c. 내일 꼭 오세요。(年下→年上、女→男)

→ テクダサイ形 : 「来て下さい。」 『미녀』

d. 아, 형 비번이면 비번답게 좀 구세요。(年上→年下、男→男)

⁹⁾ 54례 중 14례(25.9%)가 선어말어미 ‘-시-’와 수수보조동사 ‘-어 주다’가 결합한 ‘-어 주세요’의 형태로 실현된 발화문이었다.

→ 그 밖의 형태 : 「先輩は今日非番ですよ。」

『새드』

이어서 한국어의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이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자. 한국어의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은 133례가 해체로 실현되고 20례가 한단체로 실현되었다. 우선 해체의 행위요구문이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면 52례(39.1%)가 口形, 39례(29.3%)가 テ形, 4례(3.0%)가 テクレ形, 4례(3.0%)가 「동사 기본형+ナ」形, 34례(25.6%)가 그 밖의 형태로 번역되어 있었다. 일본어의 비존대어 행위요구문이 口形보다 テ形에 의해 실현되는 경향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일본어로 번역할 때는 テ形보다 口形이 선택되는 빈도가 높았다. 口形으로 번역된 한국어의 행위요구문은 주로 「年上→年下」에서의 발화였는데, 이는 일본어와 비교하여 한국어가 화자와 청자의 연령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사회적 배경을 반영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34)는 해체의 명령문이 사용된 행위요구문이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나타낸 예이고, (35)는 해체의 말다 부정형이 사용된 행위요구문이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나타낸 예이다.

(34) a. 집키, 카드 다 내놓고 차키도 반납해. (年上→年下、男→女)

→ 口形 : 「家と車のキー、カード、全部返せ。」

『미녀』

b. 너 당장 내 핸드폰 번호 지우라. (同年齡、女→男)

→ テ形 : 「今すぐ私の番号を消して。」

『청춘』

c. 수술 일정, 다 갖고 와라. (年上→年下、男→女)

→ テクレ形 : 「手術の日程表を持ってきてくれ。」

『미녀』

d. 내 핸드폰 번호 말해 봐. (同年齡、女→男)

→ 그 밖의 형태 : 「私の番号、覚えてる?」

『청춘』

(35) a. 하지 마, 하지 마. (年上→年下、男→女)

→ 口形 : 「やめとけ(←やめておけ)。」

『미녀』

b. 가까이 오지 마. (同年齡、女→男)

→ テ形 : 「近くに来ないで。」

『청춘』

c. 앞으로 이러지 마. (年上→年下、男→女)

→ 「동사 기본형+ナ」形 : 「二度とするなよ。」

『미녀』

d. 너무 걱정하지 마. (年上→年下、男→男)

→ 그 밖의 형태 : 「心配いらないよ。」

『새드』

마지막으로 한단체의 행위요구문이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살펴보도록

록 하겠다. 분석 결과 20例 중 3例(15.0%)가 口形, 11例(55.0%)가 テ形, 1例(5.0%)가 テクレ形, 1例(5.0%)가 「동사 기본형+ナ」形, 4例(20.0%)가 그 밖의 형태로 번역되어 있었다. 청자에 대한 대우도가 가장 낮은 한다체의 행위요구문이 口形이 아닌 テ形로 번역된 예가 많은 것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본고에서 사용한 데이터에서 추출한 한다체의 행위요구문이 주로 「同年齡間」에서 사용된 예문이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36)과 (37)은 한다체에 의한 행위요구문인데, (36)은 한다체의 명령형이 사용된 행위요구문이 일본어로 번역된 예이고, (37)은 한다체의 말다 부정형이 사용된 행위요구문이 일본어로 번역된 예이다.

- (36) a. 자, 너도 나중에 필요하면 부탁해라. (年上→年下、男→男)
 → 口形: 「お前も必要になったら連絡しろよ。」 『새드』
- b. 그 신발 좀 버러라. (同年齡、女→男)
 → テ形: 「今履いてる靴は捨てて。」 『청춘』
- c. 거기 거 기왕이면 빵꾸 난 것도 좀 떼워라.
 → テクレ形: 「靴下の穴も縫ってくれ。」 (同年齡、男→女) 『청춘』
- d. 고백해라! (同年齡、女→女)
 → 그 밖의 형태: 「告白すれば?」 『미녀』
- (37) a. 절대 물건은 사지 마라. (同年齡、女→女)
 → テ形: 「品物は買わないで。」 『미녀』
- b. 말 시키지 마라. (同年齡、男→女)
 → 「동사 기본형+ナ」形: 「話しかけるな。」 『청춘』

이와 같이 일한어의 행위요구문은 화자와 청자 간의 거리 조정 전략 면에서 차이점을 보임과 동시에 형태 간의 대응 관계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이러한 분석 및 고찰 결과는 일한어가 유사성이 많은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로서 해당 언어의 행위요구문을 발화할 때 화용론적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행위요구문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청자에 대한 정중도에 주안점을 두고 존대어의 간접적 표현을 주된 고찰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그다지 주목

받지 못했던 직접적 표현을 존대어와 비존대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일본어에서는 요구의 강제성이 낮은 형태를 선택함으로써 청자에 대한 대우도를 높이고 배려를 나타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어에서는 격식체 형태보다 비격식체 형태를 선택하여 청자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기보다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본어 행위요구문의 한국어訳과 한국어 행위요구문의 일본어訳을 확인해 본 결과, 형태 간의 대응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고는 일한어의 행위요구문을 직접적, 명시적으로 나타내는 발화문만을 고찰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행위요구문을 간접적, 비명시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도 본고의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논고를 달리하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고에서는 종조사와의 결합 여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향후 과제로 삼기로 하겠다.

【参考文献】

- 고성환(1996) 「現代国語 命令文에 대한 意味·語用論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p.105-106
-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p.117-118
- 고영근·남기심(1993) 『표준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 p.325-373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체계편』, 커뮤니케이션북스. p.213-253
- 김예영(2008) 「한국어의 명령 표현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 p.1-135
- 박영준(1991) 「명령문의 개념과 범주」,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p.331-349
- 尹相実(2007) 「韓日要求表現における発想及び言語行動差に関する研究」, 『일어일문학연구』 제62권 2호. 한국일어일문학회. p. 91-113
- 한 길(2002) 『현대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역락. p.192
- 柏崎秀子(2007) 「依頼·要求にみる意図の伝達」, 『ことば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対人関

係のレトリッカー』ナカニシヤ出版. p.98-116

- 蒲谷 宏・山口義一・坂本 恵(1998)『敬語表現』, 大修館書店. p.136-144
- 益岡隆志・田窪行則(1992)『基礎日本語文法(改定版)』, くろしお出版. p.117-122
- 町田健・井上優(2002)『日本語文法のしくみ』, 研究社. p.16

要 旨

日韓語は文法的な類似点が多い言語として知られているが、ことばの運用面からみると相違点も少なくない。本稿では両言語において直接的に行為要求を表す際、話し手がどのような形式を使用して聞き手との心理的距離を調節しているかを映画の台詞を用いて分析した。

その結果、日本語ではテ形やテクダサイ形のように要求の強制度が低い形態を選択することで待遇度を高め、聞き手に対する配慮を表す傾向が強かったのに対し、韓国語では話し手と聞き手の社会的関係や心理的距離を明示化する格式体ではなく、親しみや情感的な態度を表す非格式体を選択し、聞き手との心理的距離を縮めようとする傾向が強い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また、行為要求文を実現する日韓語の多様な形式間で一定の対応関係が見られるかを確認すべく、日本語・韓国語の行為要求文が韓国語・日本語にどのように訳されたかを映画の字幕を用いて観察した。その結果、日本語の丁寧体であるナサイ形が韓国語の非丁寧体であるhay体に訳されたり、韓国語の丁寧体であるhayyo体が日本語の非丁寧体であるテ形に訳されたりするなど、明確な対応関係を見出せないことが分かった。その理由は、日本語では話し手と聞き手の社会的関係や発話場面などによって多様な形態が使い分けられているのに対し、韓国語では話し手と聞き手の年齢を基準とし、丁寧体と非丁寧体の使い分けはなされていたものの、全般的に非格式体の形態が用いられる傾向が強く見られ、これらが翻訳に影響を与えたためだ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日韓対照、行為要求文、待遇度、配慮、心理的距離、非格式体

투 고 : 2012. 2. 29

1차 심사 : 2012. 3. 17

2차 심사 : 2012. 4. 7